

## 번역 문화의 전통과 번역 정책에 대한 몇 가지 제안

김 영 환  
(부경대)

### 1. 가난한 번역 문화의 전통-매체의 측면에서

거대 문명권의 주변부에 있는 우리에게 번역은 매우 중요하다. 번역을 중시하지 않는다면 학문 연구나 교육이 곧 외국어 배우기란 등식이 성립하게 될 것이다. 지난날 왕조 시대에 학문은 곧 한문으로 된 유학 공부였다. 오랫동안 학문이나 교육에서 우리말과 글이 쓰이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따라서 한국 번역사는 무척 가난하다. 한글이 나오기 이전의 이두로 된 '번역', 이를테면 『대명률직해』(1395) 같은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한문보다 더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를 번역으로 보아야 할지는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한문도 알아야 하고 이두 표기도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한자의 뜻과 소리를 빌려 우리말을 적은 부분이 있으나 곳곳에 한문 어순으로 된 구절도 많다. 한자라는 매개체로 고전 중국어를 번역하는 것은 몹시 어려운 일이었다. 글자 자체도 어렵고 글자의 수도 많아 이를 쓸 수 있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였다. 한글이 나온 뒤에 번역은 그 이전의 번역과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만, 그 가능성은 아직도 깊이 묻혀

있는 것이었다. 번역 문화의 전통은 쉽고 대중적인 글자가 있느냐에 따라, 또 그 글자를 어떻게 평가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서구 문물이 들어와 한글에 눈 뜬 이후에는 또 한번 번역의 상황은 크게 달라진다. 이런 사실은 번역 문화의 전통이란 그 번역을 가능하게 만드는 수단 또는 매체로서 글자를 떠나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을 새삼 확인시켜 준다.

인류 문명사에서 글자를 갖게 된 것은 사건이다. 글자를 가짐으로써 기록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림으로써 역사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기록의 수단을 가진 사람은 처음에는 몇몇 특권 계급의 사람들이었으나 이 글자가 점차 발전하여 대중화되었다. 또 이 글자는 민족을 뛰어넘어 여러 민족의 말을 적을 수 있게 적절하게 변형되기도 했다. 유럽을 기준으로 본다면 낱소리 글자(알파벳)는 추상적이고 무의미한 부호이며 말을 적는 수단으로서 여러 나라에 공통적으로 사용되었다. 그것은 굳이 국적을 따질 수도 없이 국제적이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사정이 달랐다. 한자는 탈바꿈하여 소리 글자로 발전하지 않았고 날이 갈수록 글자 수가 불어나 대중이 배우기에는 큰 짐이 되었다. 또 고립어인 중국어를 기초로 만들어진 글자이기에 어순도 우리와 다르고 교착어인 우리말을 적는 데는 매우 불편하였다. 글자가 없지는 않았지만 대부분의 민중에게 글자는 현실적으로 없는 것과 같았다. 어려운 한자와 한문으로 우리의 삶을 기록하거나 이두로 적는 것은 극소수의 지배층에게도 무척 어려운 일이었다. 우리의 삶과 문화를 쉽게 기록할 수단이 없었으므로 역사 기록이 가난해졌고 문화나 전통을 기억하는 사람도 적어졌다. 사실상 글자가 없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 우리 역사에서는 너무 길었다.

한글이 쉽고 과학적으로 만들어진 우리 글자이긴 하지만, 세계 글자 역사상 매우 늦게 세상에 나왔다. 만주어 문자가 17세기에 나오기는 하지만 몽골 문자의 모방으로 알려지고 있다. 빛과 함께 그림자를 보아야 한다. 세종이 한글을 만들었을 때, 한자는 확고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쉬운 우리 글자를 너무 늦게 갖다 보니 우리의 옛날 모습을 전하는 기록을 많은 부분 딴 나라에 기댈 수밖에 없게 되었다. 옛날로 올라갈수록 중국이나 일본에 기대야 한다. 그 기록들은 중화주의나 일본 중심으로 왜곡된 자료이다. 우리 겨레의 옛날 모습을 그냥 서술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거기에는 이미 지배와 통제라는 관심이 들어 있다. 중국의 사서에서 우리는 동이족으로 묘사된다. 이런 편견은 중국 고

전에 수천 년 동안이나 되풀이되고 있다. 다른 거래를 오랑캐라 보는 관점에서  
도 말과 글은 큰 구실을 한다. 역사를 기록할 매체(글자)의 불편함 또는 결여는  
역사 그 자체의 가난함이나 열등감으로 바로 연결되기 쉽다.

번역에 쓸 만한 새로운 매체가 뒤늦게 생겨났으나 그것은 ‘언문’이었다. 즉  
일상의 말을 적는 글자일 뿐이고 학문하는 데 쓰는 글자가 아니었다.<sup>1)</sup> 중세 유  
럽에서도 학문 언어인 라틴말과 토착어(vernacular language)는 분리되어 있었  
다. 늦둥이 한글은 오랜 통념에 따르면 학문이나 교육에 쓸모없는 것이었다. 라  
틴말 성서를 영어로 번역하는 데 커다란 저항을 만난 것처럼 한글로 쓰고 읽는  
데 지식인들은 커다란 상실감을 느끼고 이에 저항하였다. 언문은 ‘학문에 손해  
되는 글자’(於學有損)였다.

“서리가 언문만으로 높은 벼슬에 오른다면 후진이 모두 이와 같을 것이니  
어찌 애를 써서 생각하고 힘써 성리학을 연구하겠습니까?”<sup>2)</sup>(최 만리의 상  
소문)

한글이 나오기 이전의 우리 문학의 유산은 일본에 비하면 가난하기 그지없  
다. 우리글을 늦게 갖게 된 사실은 문학마저도 몹시 가난하게 만들었다. 선조들  
이 창작한 한문학은 우리 문학이 아니라는 반론에 대해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  
한다. 그 내용으로 그런 문학이 우리 역사와 연관이 있다하더라도 살아있는 문  
학의 전통이 되지 못 한다.

우리 사상사의 전개도 우리 지식인들이 우리말글을 외면했다는 비판으로부  
터 자유롭지 못 하다. 사상사의 전개가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관념적으로 흘렀  
다. 리(理)니 기(氣)니 사단이니 칠정이니 하면서 주자학의 정통을 고집하였고  
주자학 이외의 학풍이 번져나가지 못한 것도 일본처럼 한문을 뜻으로 읽지 않  
고 소리로 읽는 전통을 고수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우리말이 아닌 한문으로만  
저술하여 토론하면서 한문을 소리로만 읽어 귀족주의적이고 폐쇄적인 성격을  
띠었다. 중국에서 부처가 중국의 부처가 되었는데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주자는

1) “언문”에 대한 이런 풀이는 류 렬 『조선말 력사』(486)을 따랐다.

2) 苟爲吏者以諺文而宦達，則後進皆見其如此也，以爲：“二十七字諺文，足以立身於世，何須苦心勞思，窮性理之學哉?” 세종 26년 2월 20일.

조선의 주자가 되지 못하고 주자의 조선이 되었다는 평가가 적절해 보인다.<sup>3)</sup> 번역에 쓰일 쉬운 글자라는 매체는 역사와 전통을 보존하는 데 필수적이며 그것은 또한 번역을 통하여 외래 문화를 받아들이는 데 주체적인 길을 여는 것이기도 했다.

## 2. 유학이 우리말글 의식에 끼친 영향 -내용의 측면에서

쉬운 글자는 번역 문화가 꽃 피기 위한 필요 조건에 지나지 않았다. 유학의 화이사상은 번역 문화의 전통을 크게 제약하였다. 중국 중심의 천하 질서에 편입되어 있던 당시 지식인에게 중국과 다른 글자를 갖는 것은 위험해 보였으며 오랑캐의 일이라 보았다. 몽골, 거란, 여진에서는 중국과 다른 고유 글자는 새 왕조가 개창될 때마다 만든 것이었다. 예외가 있다면 일본이 될 것이다. 최 만리가 사대에 어긋난다며 한글 창제 반대 상소를 올린 것도 이런 사실을 알고 한 것이다. 유교 질서를 숭상하던 조선 왕조에서 한글을 만든 것은 정말 놀라운 사건임에 틀림없다. 중국 한족 문화를 보편 문화와 동일시해 온 유교적 지식인들은 스스로 우리말을 “오랑캐말(夷言), 방언(方言)”이라고 불렀다. 우리말은 문명적이지 못하고 한 지역에 국한된 말이라 보고 있다. 우리말과 글에 대한 이

3) 그러나 우리 전통 기록 문화가 가난하다는 데서 우리 역사가 늘 보잘 것 없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글자는 역사 기록과 떼어 수 없는 관계에 있으며 주변 민족이 글자를 갖지 못한 상황은 중국인에게 자기만이 문화 민족이라는 편견을 더욱 확고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글자가 없다는 것, 곧 성문법을 따르지 않는다는 사실은 문화적 후진성의 상징은 아니다. 성문법이 없다는 사실이 곧 야만인 사회가 무정부 상태를 뜻하지는 않는다. 불문법에 의존하는 사회도 ‘선진’사회 못지않게 완벽한 통치가 가능하며 법과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 “그리스 로마 고전과 기독교의 시각으로 본 야만인의 역사를 액면 그대로 수용해서는 안 되며, 소위 문명화된 시각을 곧 진실과 혼동한다면 심각한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루드쿨리(2004) 『바바리안』 10쪽)라는 주장이 옳다면 우리를 오랑캐라 보는 중화주의적 시각도 커다란 오류라고 말해야만 한다. 글자 기록을 중심으로 하고 이것만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중화 사관의 늪에서 끝내 헤어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시각을 주체적 시각으로 재구성해야 한다. 이런 장애는 말을 적기에 적절하고 배우기 쉬운 글자를 오랫동안 갖지 못한 데서 생긴 것이다.

런 편견은 중국 문화의 관점에서 우리 문화를 보기 때문이다. 고대 그리스에서도 ‘야만족(barbaroi)’은 그리스말에 서툰 사람을 가리켰다. 한결같이 중화의 제도를 본받아야 한다는 강박 관념에 사로잡혀 있었다. 유학의 근본적인 문제 의식이 바로 중국의 통일과 안정에 있었고, 이것은 동시에 이민족의 중국에 대한 복종을 의미하였다. 유학의 근본 이념인 평천하(平天下)가 바로 그 표현이다.<sup>4)</sup> 이런 중화주의적 세계관에 빠질 때, 중국과 다른 고유 문화를 버리게 된다. 한문에 대한 태도의 이런 차이는 곧 유학 또는 중국 문화를 받아들이는 태도의 차이로 나타난다. ‘오랑캐 풍속(夷俗)’이라 보아 중국과 다른 고유 문화를 지워나갔다. 그리하여 작은 중화란 헛된 자부심을 얻었다.<sup>5)</sup>

이런 점을 생각할 때, 유학을 국가 경영의 근본 원리로 보던 시대에 한글이 나온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다. 한글이 그 뒤로 지적 활동의 매체로서 적극적으로 쓰이지 않은 것은 중화주의적 말글 의식이 지배적이었음을 말한다. 한자 중심의 말글 의식에 젖어 있던 지식인들은 낱소리 글자로서의 한글의 혁신적 성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다(옹 53). 한자를 ‘문자’나 ‘참글자’로 보아 온 눈에는 한글은 글자가 아니었다. 1536년에 세워진 한글 비석인 영비가 그 좋은 증거다.

“영한 비라. 넘어뜨리는 사람은 화를 입으리라. 이는 글 모르는 사람더러 알게 하노라.” (현대어로 고쳤음)

남아 있는 한글 비석 가운데 가장 오래된 이 비석에서 “글”은 한글을 글자의 범위에 들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글자의 발명도 인류사의 한 사건이었지만 낱소리 글자의 발명도 이에 못지 않은 큰 사건이었다. 에릭 헤이블릭은 알파벳은 불이나 바퀴의 발명처럼 서구 세계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린 위대한 도약이자 천재의 작품이라고 보았다(존 맨 34). 표어 문자로서의 한자는 이미지의 성격을 갖는다. 이미지는 세계의 현

4) 천하 사상을 제국주의로 규정하기도 한다(이춘식 160).

5) 중세 서유럽에서는 아랍어로 된 고전을 라틴어로 번역하여 잊어버린 고전 문화의 전통을 되살릴 수 있었다(박상태 34-52). 번역은 보편적 현상이며 우리 지성사가 보여준 우리말과 글에 대한 무관심이나 번역에 대한 속좁은 태도는 거래 문화에 엄청난 짐이 되었다.

실과 너무 많이 닮아 있다. 동시에 전체의 모든 부분을 자각하게 하고 각 부분들은 통합되어 하나의 형태로 전체가 만들어진다. 대다수의 이미지는 한꺼번에 지각되기에 동시적이고 종합적이다. 알파벳 읽기는 이와 다르다. 알파벳의 낱글자는 의미없는 부호다. 눈이 선형의 열에 배치되어 있는 낱글자를 훑어 갈 때, 낱말들은 의미를 갖고 그 모습을 드러낸다. 문장은 낱말로 낱말은 음소(낱글자)로부터 구성된다. 글의 이해는 부분들의 수평적 연속에 의해 이루어진다(쉴레인 21-22). 한글은 한자와 글자의 성격이 너무 달랐다.

유학을 숭상한 탓에 번역한 중국 고전도 유교 경전이 많다. 유교의 경전을 언해한 것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한문을 한글로 번역하는 일이다. 이때 한문 원문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오늘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번역과 거리가 있다. 번역이라기보다 한문 텍스트에 대한 주석과 풀이라는 뜻이 강하게 남아 있다. 번역의 뜻을 좁게 잡아 언해마저 번역에서 뺀다면 우리의 번역 전통은 더욱 가난해진다. 언해 대상은 유교 경전 외에도 불교 경전, 외국어 학습서, 의학과 농경 등 기술에 관한 서적도 포함한다. 언문은 학문하는 데는 쓰지 못하는(않는) 글자란 뜻이다. 따라서 언해는 정통 사대부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으며 기껏해야 보조적 수단이나 비사대부층을 위해 허용되는 방편이라는 성격이 강하였다. ‘번역’은 어떤 언어로 표기된 것을 다른 언어로 바꾸어 표현할 경우에 두루 공통적으로 쓰이는 용어인 데 대하여 ‘언해’는 주로 한문을 우리말로 바꾸어 표현하는 경우에만 사용된 번역 용어이다. 언해는 번역의 특수한 경우라 할 수 있다. 즉 글말인 고전 중국어로 씌어진 책을 입말을 적는 글자로 번역한 것이다. 최초의 언해는 『훈민정음언해』며 한글 창제 이후 약 50년간에 출현한 번역서는 모두 합하여 40여 책, 200여 권에 이른다.

이 언해에서는 한자어와 직역 투가 많다는 것도 생각해 볼 거리다. 이것은 우리의 전통적 언어 의식이 번역에서 엄격한 뜻같음을 요구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러한 요구는 매우 강력하였는데 이를 잘 보여주는 경우가 유교 경전의 하나인 『소학』 번역이다. 이 책은 처음 1518년(중종 13) 김 전(金詮)·최 숙생(崔淑生) 등이 왕명으로 번역하여 간행하였다. 『번역 소학』은 10권 10책이다. 현재 초간본은 전해지지 않고, 16세기 후반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복간본(復刊本)이 낙질로 전해지고 있다. 현재까지 발견된 복간본은 16세기 국어연구의 중요한 자료가 된다. 그런데 이 책에 대하여 쉽게 풀어 쓴 부분이 있어 원전

과 다르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조선 시대의 언어 의식으로는 원전과 다르다고 느껴진 것이다. 그리하여 얼마 가지 않아 직역을 원칙으로 한 『소학 언해』를 펴내기에 이르렀다. 6권 4책으로 되어 있는데, 1586년(선조 19) 교정청(校正廳)에서 처음으로 간행하였고, 이를 저본으로 하여 몇 차례의 재간행이 이루어졌다. 이것은 언해에 나타난 언어 의식이 극단적인 글자 그대로 번역하는 것을 지지했음을 보여 준다. 이런 식의 생각을 밀고 나가면 언해라기보다 한문에 토를 단 글이 된다. 언해에는 원전 중심주의가 두드러진다.

이런 우리의 전통이나 언어 의식이나 전통은 중국이나 일본과 대조적이다. 중국의 불교 수용에서 보이는 여러 특성들은 한역 불경을 빼놓고 말할 수 없다. 불경 한역은 불교의 모습을 바꾸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놀았다.

스리랑카, 미얀마,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등 남방 아시아 여러 나라들에서는 팔리어의 삼장이 보존되어 있고, 불교 교단에서 쓰이는 말 역시 팔리어다. 남방 아시아에서 쓰는 인도에서 성립된 번역을 대하는 전통은 아랍 번역의 전통-고전 그리스의 번역이다. 부분적으로는 각각 그 나라의 말로 번역되어 있으나 그 나라 말로 된 경전은 일반 민중들을 교화하기 위한 것으로 그다지 중요시되고 있지 않다. 승려들은 팔리어로 된 성전을 읽고 팔리어로 이해하고 있다. 티벳인들도 불교 성전을 티벳어로 번역하여 방대한 티벳 대장경을 이루어 놓았으나 번역한 것을 읽기만 해도 원문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지극히 충실하게 직역해 놓았다.

그런데 중국의 번역자들은 인도나 중앙 아시아에서 가져온 산스크리트와 중앙 아시아의 여러 가지 말로 된 경전을 한문으로 번역하기에 힘을 기울였고, 한번 자기 나라말로 번역되자 원전을 아주 버리고 돌아보지도 않았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중국의 전통 문화 속에 섭취되고 동화된 것이다. 한역 불경은 원문을 많이 수정하였다. 뜻 중심 번역이었다. 쿠마라지마의 번역은 번역이라기보다 창작이라고 평가받는다. 불경 번역사에서는 같은 원어가 번역한 사람마다 다르게 번역되고, 한 사람이 같은 원어를 경전이 달라질 때마다 바꾸는 경우도 없지 않다. 심한 경우는 같은 책 안에서도 바꾸는 경우도 없지 않다. 번역자의 해설을 경전의 일부인양 끼워 넣는 경우도 있었다.<sup>6)</sup>

6) 불경 번역에 대한 자료는 나카무라의 『중국인의 사유방법』 18-25에서 도움을 얻었다.

같은 경전이 시차를 두고 여러 번 한역되었을 경우에 뒤에 번역된 것이 원문에 더 충실하다. 정토종, 화엄종, 천태종, 선종은 중국인의 생활이나 사유 방법에 맞게 교리를 세우고 대중화하였다. 직역한 불경의 대표자인 현장의 법상종은 인도의 교리를 그대로 가져온 것과 같은데, 중국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였다. 법상종 전통은 귀족적 종교 전통이고 낯선 인도 전통이 강한 종파로서 중국에서 그 전통이 끊어졌다. 이처럼 중국인들은 오랜 번역의 역사를 갖고 있으며 직역에 매달리지도 않았다. 번역에 대한 태도는 곧 외래 문화를 얼마나 주체적으로 수용하는가를 드러내는 잣대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의 경우를 보아도 번역 문화의 전통은 매우 풍부하다. 일본도 한자와 한문 기록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한문을 뜻으로 읽는 훈독의 전통이 오래 전부터 확립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 가나의 발명이 한글 창제보다 훨씬 앞선 9세기에 이루어졌다. 이것은 당 나라의 힘이 점차 쇠퇴하면서 주변의 여러 민족들이 자립해서 자신의 문자를 만들기 시작하던 때와 일치한다. 그 뒤로도 10세기의 요, 11세기의 서하, 12세기 금 등의 문자가 잇달아 나왔다. 15세기에 나온 한글은 시간적으로 다른 겨레에 비해 가장 늦게 나온 것이다. 일본에서는 헤이안 시대에 율령제가 일단 성립하자 도리어 외래 문화 도입기와는 다른 문화적 충족감이 생겨나 외래 문화와 직접 접촉하지 않아도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층이 생겨났다. 한문을 고유어에 흡수하게 되었다. 이런 경향은 메이지 이후 유럽 문화의 수용이지 시대에 외국인 교사가 점차 줄어들고 영어는 책을 통하여 배우게 되었다. 메이지 시대 일반인을 위한 영어 교과서는 영문 위에 훈점을 단 경우도 있다고 한다. 훈독은 한문이 일본어 속에 흡수되는 중요한 출발점이다.

이 점에서 우리는 중국이나 일본과 완전히 다른 길을 갔다. 헤이안 시대에 해당되는 최 치원과 같은 사람에게서 중국 취향이 두드러져 나타난다. 조기 해외 유학파이자 당 나라의 관료였던 그에게 설 총에게 엿보이던 중국어와 다른 우리말 표현 수단에 대한 고민이 보이지 않는다. 나름대로 주체적인 표기 방법인 향찰 표기의 전통은 더는 발전하지 못하고 시들해졌다. 최 행귀 같은 이는 우리말로 된 향가를 중국인들이 알 수 없다며 도리어 한문으로 번역을 하는 작업을 하였다. 한자와 가나가 공존하면서 문화의 전통을 이룬 일본과는 달리, 한자와 한문은 한글과 서로 배타적인 경우가 많았다.<sup>7)</sup> 일본에서는 9세기 말, 견당사가 폐지될 무렵, 훈점이 생겨나고 히라가나 가타가나가 발달하기 시작하

는 등, 고유어가 가진 구술성의 힘이 구체적으로 부활하기 시작하였다(구로즈미 220-6, 237-8). 중국 문화를 받아들이던 일본의 태도는 근대 유럽과 미국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데서도 엇볼 수 있는데 중국 문화를 받아들이는 태도와 기본적으로 같다. 그 결과는 매우 성공적이었다.

### 3. 번역 경시와 미국말 승배에 대한 몇 가지 반성

언해에서 보듯이 엄격한 직역을 요구한 전통은 변한 것이라 볼 수 없다. 이런 생각에 따를 때 원전을 번역할 때 잃어버리는 것이 있으며 번역은 파괴적일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이다. 번역은 원전에 충실해야 하며 번역자는 부차적인 존재에 지나지 않게 된다.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유독 우리에게 강한 전통임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유럽에서는 자국어화(assimilative translation, domestication translation)하는 번역이 우위를 차지하였다. 이것은 외국 텍스트를 자국의 문화와 언어에 동화시키는 것으로, 의미 대 의미의 번역이다. 원전의 낯섬(외국성)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자국의 문화에 적합하도록 번역한다. 자연스럽게 쉽게 읽히는, 이른바 번역투가 없는 번역이 좋다는 전통이 유럽의 번역 문화 전통을 지배했다. 이에 맞서는 견해는 소수 의견인데 자국어화 번역이 문화의 차이를 단절하기 때문에 원전인 외국어 텍스트의 낯섬과 그 흔적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이들은 자국민에게 유창하게 읽히기보다는 원전 텍스트의 수사성과 운치를 살려 번역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로빈슨 7-8, 169-72).

번역을 알보는 전통은 오늘날 의미론이나 언어 철학적 관점에서 보면 대개 부정적으로 평가받는다. 엄격한 직역은 두 표현 사이의 엄격한 동일성을 강조함으로써 자칫 번역 불가능론, 번역 무용론에 이르기 쉽다. 직역은 또 표현마다 고정되고 명확한 의미가 있다고 여기지만 엄격한 동일성 또는 등가성은 현실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해체주의 또는 탈근대주의에서는 한 표현마다 고정된

7) 한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지금은 이런 배타적 성격은 한자를 버릴 수 있는 좋은 배경을 이룬다.

하나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경향이 일반화되어 있다. 한 언어가 실제 세계를 분절해 보는 방식에서는 차이가 적지 않은 셈이다.

원전과 번역본 사이의 위계 질서를 상정하는 것도 번역 전통을 풍부하게 하는 데에 큰 걸림돌이 된다. 그러나 모든 텍스트는 그 자체로서 독특한 것이며, 동시에 다른 텍스트의 번역이다. 어떠한 텍스트도 전적으로 원작이라 할 수 없다. “원전”이란 표현 대신 “출발 언어”란 표현을 쓰는 사람이 많은 것도 이 때문이다. 어떤 텍스트도 영점에서 시작하지 않으며 이미 있는 텍스트를 옮겨 쓰거나 바꿔 쓰거나 비판하며 새롭게 쓴 것이다. 근원적으로는 언어 자체가 이미 무엇보다도 먼저 비언어적 세계에 대한 번역이다. 원전의 신성하다고 여기거나 그것이 번역보다 우위에 있다는 생각은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 원전이라는 것도 이미 그 시대의 여러 텍스트와 그 이전 시대의 텍스트로 구성된 것이다. 벤야민의 생각대로 번역은 텍스트의 생존을 보장한다. 실제로 번역은 텍스트의 사후 삶, 즉 원전이 죽은 뒤부터 살기 시작한다(권택영 118). 번역은 다른 언어로 쓰인 새로운 원문이 된다. 이런 여러 점을 생각할 때, 번역이 없었다면 『조선왕조실록』에 우리가 접근할 수 있겠는가. 한문으로만 쓰였다라면 죽어 있을 텍스트를 한글 번역으로 되살아나 생명을 이어가는 것이다. 원전은 번역본에 빛을 지고 있다. 번역은 서로 다른 문화 사이에서, 또는 시간적 간격을 둔 시대들 사이의 의사 소통 행위이다. 번역은 부차적인 것에 그치지 않는다. 또한 오늘날 번역가는 단순히 부차적인 존재가 아니라 문화와 문화를 중재하는 창의적인 예술가로 여겨지는 경우도 많다. 일본이 여러 차례 노벨 문학상을 받는 데는 번역가의 힘이 컸다 말이 오가고 있다.

모든 번역은 나름대로 독특하기 때문에 모든 텍스트는 원작이다. 그러므로 모든 번역작은 어느 정도까지는 하나의 발명품이고 그 자체로서 하나의 독특한 텍스트를 형성한다.

번역을 알보는 원전 중심주의는 외국어에 대한 수요를 극대화한다. 번역 과정에서 일어나는 손실과 이득을 따져서 얻은 것은 그냥 넘기고 번역가가 때로는 번역 과정의 직접적 결과로서 출발언어 텍스트를 풍부하게 하거나 명료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였다(바스넷 63-74).

번역에 대한 인식이 이전에 비하면 많이 나아졌다. 그러나 아직도 국어에 대한 수요 그 자체는 조금도 주는 것 같지 않다. 오역 시비도 끊임없다. 이것은

어찌된 일인가. 먼저 원전 중심주의가 깨지지 않고 있다. 이제까지 번역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는 원전에 대한 강조와 함께 이루어졌다. 원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번역을 하는 것이고, 원전에 충실한 번역이 좋은 번역이었다. 우리의 문화 풍토에서 번역은 원전의 영혼을 옮겨오는 행위였다. 원전과 번역 사이의 신성한 위계 질서가 깨지지 않고 있다. 대상 텍스트가 어려울수록 학계에서는 ‘근본주의’가 늘어간다. 그것은 매우 배타적 원리주의이기 일쑤이며 결국 번역 권위주의를 형성해 왔다. 따라서 원전 중심주의는 번역을 하더라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말과 글로 우리 현실 문제를 생각하고 해결하려는 학문 체계를 이루는 데 아직도 가야할 길이 멀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원전의 우위와 신성함을 깨뜨리는 일이다. 번역을 하면 할수록 원전으로부터 뺏어 나온 그물에 더 깊이 얽매이게 되어 원전을 독점한 자가 줄어들지 않고 번역자가 그 원전에 대한 권위자로 재탄생하게 되니 번역이 자생적 학문에 이바지하는 바가 매우 적다는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다.(『교수신문』 「번역은 어떻게 원전중심주의를 강화하나」 인터넷판 2005.11.18) 원전 이해에서 올바른 원전 번역으로 문제의 초점이 옮겨갔을 뿐이다. 표준화된 원전을 확정하여 원전을 잊고 우리말로 된 텍스트로 학문적 토론이 이루어져야 한다.

외국어 특히 미국말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수 없는 원인은 원전 중심주의에만 그치지 않는다. 언어 외적 현실로서 미국 유학에 대한 지나친 가치 부여와 떼어서 생각할 수 없다. 미국말에 대한 부러움은 미국이라는 제국의 주변부 국가들에 공통적인 현상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정도가 심하다. 여기에 몇 가지 통계 자료가 있다. 미국에서 외국대학 가운데 미국 박사를 가장 많이 배출한 대학은 서울대라는 조사 결과가 있다.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서울대가 모두 1655명의 미국 박사를 배출해, 외국 대학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고 보도했다.<sup>8)</sup> 이는 미국 대학들을 포함시킨 전체 순위에서도 버클리대(2175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것이다. 20위권 내에 국내 대학이 4곳이나 포함되어 있다. 반면 이웃 일본의 대학들은 순위에서 찾아 볼 수 없다. 미국말 숭배가 어디서 오는가를 말해 주는 자료가 아닐까. 교수가 되는 데도 미국 박사 학위는 커다란 권위를 갖

8) 이 조사는 미국 시카고대가 국립과학재단과 교육부 등의 후원으로 5년 동안 미국 박사학위 취득자의 출신 학부를 분석한 결과다(『서울신문』 2005. 1.11).

고 있다. 도쿄대 교수 가운데 2004년을 기준으로 외국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은 겨우 5.2%에 지나지 않았다. 대다수(63.5%) 교수가 일본 국내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서울대는 50.5%가 미국 박사 학위를 갖고 있다. 90%에 가까운 단과 대학도 있었다. (『시사저널』, 2005.1.17)<sup>9)</sup>

일본 학문의 미국 의존이 적은 것은 그들이 오랜 번역 문화의 축적이 있고 간판보다는 실력을 우선하여 교수를 채용하기 때문이라 분석된다. 일본은 메이지유신 이래로 우리의 두 배에 달하는 시간 동안 근대화 경험을 축적했다. 오늘날 일본은 한국과 비교해 외래 학문 의존도가 낮다. 일본은 근대화 초기에는 국가 정책으로 국내 인재들의 유학을 장려했으나, 이 유학생들이 귀국한 후 외래 학문을 자기화하는 데 애썼다. 일본 학문의 자생력은 번역이 그 밑바탕이다. 우리만이 미국말에 특이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아무래도 우리가 고전적인 유교 국가로서 충실한 사대의 모범생이었던 역사적 경험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입학, 취업, 승진에서 미국말 실력에 무엇보다도 큰 값어치를 두는 현실을 생각할 때, 적어도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따진다면, 조기 유학이니 어학 연수니 해서 미국말 공부에 쏟아 붓는 시간과 노력이 비합리적인 것이라 하기도 어렵다. 아이를 배어 부른 배를 움켜잡은 채 아이에게 미국 시민권을 쥐어 주기 위해 미군 기지가 있는 태양양의 섬이나 미국 서부로 날아가는 어머니들은 미국말만 알면 상류층이 될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을 것이다. 그것은 국제 경쟁력이나 지구화와 아무 관련도 없다. 제국의 권위를 업는 것이 계층 상승에 유리한 주변부 국가의 오래된 모습일 뿐이다. 우리에게 제국의 언어, 보편적인 언어, 선진국의 문화어는 고전 중국어에서 일본어로 또 미국말로 언제나 바

9) 토익 응시자 수도 우리나라가 전 세계 응시자의 40%를 차지한다(2005.12.5 신문 보도). 한국 토익 응시자가 당초 이 시험을 창안했던 일본보다 훨씬 많아졌다. 한국 응시자는 2003년 기준으로 전년 대비 49% 증가한 169만 명을 기록했다. 응시자 수 기준으로 처음으로 일본을 앞선 것이다. 작년 응시자는 183만 명에 달해 일본(143만 명)보다 무려 40만 명이나 많았다. 외국계 기업 입사회망자를 비롯하여 대기업이나 공기업들이 영어 실력을 검증하는 수단으로 정착됐다. 현재 전국 1000곳 이상 기업에서 토익시험을 활용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초등학교 3학년부터 영어 수업을 하면서 거의 모든 계층이 토익시험에 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일본 외에 대만이 연간 약 5만 명, 태국이 4만6천 명, 중국은 3만 명이다.

뀌어 왔다. 제국의 언어, 패권을 쥔 자의 언어를 좀더 매끈하게 해 보려는 열망은 사실상의 가족 해체는 물론, 혀 근육 절단 수술까지 하는 사람이 생겨나 외국 언론에 오르내리는 데까지 이르렀다. 이런데도 초등학교 1학년부터 미국말 교육을 하겠다는 것이 교육부 방침이다.

학문에서 지나친 미국 의존은 미국 박사 학위 우대로 나타나며 이는 미국 말에 대한 수요를 더욱 크게 만든다. 미국적 관점에서 우리 현실을 보게 만든다. 또한 우리 교육을 미국 유학을 준비하는 예비 과정으로 만든다. 교육과 학문 분야는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위상을 정확히 반영한다. 이른바 우리 사회의 ‘총체적 미국화 현상’이다. 대학원 교육의 파탄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여전히 ‘선진국’에서 들여온 학문 체계를 받들기만 하고,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학문적으로 풀어보려 애쓰지 않는다. ‘아마존에서 원서를 구입한 걸 자랑으로 여기고, 유행 따라 인용하는 학자의 이름을 바꾸는’ 풍경도 여전하다.

#### 4. 번역 정책을 위한 몇 가지 제안

한자를 매개로 전래된 유교 문화에서 비롯된 우리의 전통적인 말글 의식과 번역관은 번역 문화 발전의 기름진 땅이 아니었다. 학문과 교육은 우리말이나 글과 관계없는 것이라 여겼고, 심지어는 방해되는 것이라 생각하였다. 학술 용어도 한자말이 중심이다. 중국이나 일본에서 번역 작업이 국가의 체계적인 후원에 크게 힘입은 데 비하면 언해에 대한 지원은 지속적이지도 못하고 체계적이지도 못했다. 오늘날 한문 고전의 국역은 나름대로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서양 고전에 대해서는 원전 중심주의가 그대로 남아 있다. 오늘날에도 번역 정책이란 개념부터 낯선 것이다. 부분적으로는 통번역 대학원이 설치된 대학이 있고, 문예진흥원의 번역 및 출판 지원, 학술진흥재단의 동서양 고전 번역 지원, 한국 문학의 번역과 해외 출판을 위해 20001년에 설립된 한국 문학 번역원이 재단법인으로 있기는 하다. 그러나 좀더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번역 정책이 필요하다.

번역 정책이 제자리를 잡지 못한 채, 한문이 차지하던 자리를 이제는 미국

말이 점점 가름하고 있다. 원정 출산, 매끈한 발음을 위한 혀 수술, 조기 유학, 미국 박사 우대 등은 교육과 학문에서 미국말이 어떤 자리를 차지하는가를 잘 말해준다. 미국말로 논문 쓰기와 미국말로 강의하기가 교수 평가에서 큰 무게를 갖는다. 학술 용어에서도 미국말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원전 송배도 변화가 없다. 또 미국말은 계층 상승의 주요 통로가 되고 있다. 미국말을 공용어로 삼자는 운동이 이미 전개되고 있다. 제국의 언어, 지배자의 언어에 대한 전망은 우리에게만 고유한 것은 아니다. 외국 문화에 대한 비판없는 태도가 오랜 역사적 뿌리를 갖고 있는 것이 큰 문제다. 우리가 오랫동안 중국 문화를 문화 그 자체로 알았다. 식민지 지배와 분단의 역사는 거래의 말과 문화에 대한 자신감을 앗아갔다. 우리 사회에서 번역 문화에 대한 자각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번역론이 쏟아져 나오고 번역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다. 그러나 번역이 제 자리를 잡기 위해 해결해야 실질적인 문제는 나아진 게 없다. 미국말 학습에 대한 수요는 여러 원인으로 점점 늘어나고 있다. 단순히 외국 문화를 이해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외국 이론의 도움을 받더라도 우리말과 글로써 가르치고 배우며 우리 문제를 주체적으로 풀어나가려는 번역의 목표는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번역의 필요성은 어디서 오며 그 필요성은 어떻게 줄일 수 있는가를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작은 중화 의식이 바뀌어 작은 미국을 만드는 현실에 대한 반성이 절실하다. 미국말에 대한 수요를 줄이는 방법으로서 다음과 같은 번역 정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오랫동안 우리말과 글에 대한 학문과 교육의 적대 관계를 없애는 길이기도 하다.

가) 번역 장려 정책으로 경제적 지원 및 번역 문화에 대한 계몽과 이론적 저항을 극복해야 한다. 학문에서 관료주의와 국가주의를 부추기는 국립 국어원을 국립 번역원으로 개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 기구는 한때는 한자 혼용과의 본거지였다. 외국어 학자와 국어학자의 공동 작업을 추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나) 고전 번역이 학위 논문으로 인정되어야 자생적 학문의 바탕이 될 수 있다. 번역에 대한 좀더 높은 평가와 우리말로 나오는 권위있는 학술지도 길러내야 한다. 외국 학술지에 논문을 실는 데 대한 무턱대고 우대를 없애고 분야별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대학에서 외국어 강의는 예외적으로만 인정되어야 한다.

다)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 대학에서 받은 학위 논문을 의무적으로 우리말로 번역하게 해야 한다.

라) 토박이말을 적극 활용하여 학술 용어를 만들어 가야 한다.

마) 여러 대학의 외국어 문학과에 번역론을 개설하고 예비 번역사를 길러 내야 한다.

바) 좋은 우리말 사전 영한 사전을 만들어야 한다. (사전에서 너무 많이 올린 한자말은 과감히 빼야 한다. 우리말의 어휘를 너무 넓게 잡으면 어려운 번역이 될 가능성이 커진다. 영어 사전에서 토박이말이 많이 빠진 것은 사전 만드는 데 일본이 만든 영어 사전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다. king을 번역할 때 왕만 있고 임금은 빠지거나, chain smoker를 애연가로만 번역하고 골초로 번역하지 못했던 것은 이 때문이다.)

## 참고문헌

- 가토 슈이치. 2000. 『번역과 일본의 근대』. 임성모 옮김. 이산.  
 권택영. 2000. 「전이로서의 번역」. 『번역학 연구』 제1권 2호. 한국 번역학회.  
 김영환. 2004. 「사대주의, 방언, 국제어」. 『한글새소식』 379호. 한글학회.  
 나카무라 하지메. 1990. 『중국인의 사유 방법』. 까치.  
 로빈슨. 2002. 『번역과 제국』. 정혜욱 옮김. 동문선.  
 루드굴리. 2004. 『바바리안』. 뜨인돌.  
 류렬. 1992. 『조선말 력사』. 사회과학 출판사.  
 박상태. 2006. 『번역은 반역인가』. 푸른역사.  
 바스넷, 수잔. 1993. 『번역학, 이론과 실제』. 인간사랑.

- 설레인. 2004. 『알파벳과 여신』. 조윤정 옮김. 파스칼북스.  
웅. 1985. 『언어의 현존』. 이영걸 옮김. 탐구당.  
이춘식. 1998. 『중화사상』. 교보문고.  
쓰지 유미. 2001. 『번역사 산책』. 이희재 옮김. 궁리.  
존 맨. 2003. 『세상을 바꾼 문자, 알파벳』. 남경태 옮김. 예지.  
최현배. 1961. 『고친 한글갈』. 정음사.  
하루오 시라네 엮음. 2002. 『창조된 고전』. 왕숙영 옮김. 소명출판.

K C I

[Abstract]

## Translational Tradition in Korea and Translational Policy

Kim, Yeong-Hwa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The history of Korean translation involves various obstacles that have made cultural heritage very poor. First, Chinese characters had many defects as a means of translation of Korean language. Chinese characters were too many in number and too complicated to learn, mainly because Chinese characters were not phonetic symbols. And Korean grammar were quite different from those of China. Second, Korean alphabet Hangeul was created relatively recently. Until then Chinese characters were the only true and unique writing system. All intellectual achievements was done via those means. Hangeul could have changed the history of Korean translation. But Neo-confucianism taught that using Korean alphabet is harmful for studying Chinese classics. Hangeul was regarded as secondary means. "Eon-mun", which was traditional name of Korean alphabet, suggests that it was made for writing vernacular language.

"Eon-hae", which originally meant interpretation and comment on Chinese classics, is incomplete as translation in modern sense. Many factors made Korean history of translation very poor compared with that of other East Asian countries. Recent attitudes towards English still show negative legacy of Korean history of translation. Academic Support as well as Economic Support of Translation are urgent. Our conception of translation should be radically changed.

▶Key Words: media of translation, Chinese character, Korean alphabet, *Hangeul*,  
*Eon-mun*, *Eon-hae*, translation policy

김영환

부경대 인문사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kyh@pknu.ac.kr

관심분야: 언어 철학, 언어 정책

논문투고일: 2006년 4월 29일

심사완료일: 2006년 5월 30일

게재확정일: 2006년 6월 10일

K C I